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소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6월 8일 소집되었다. 김덕훈, 조용원, 최룡해, 박정천, 리병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로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신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참석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 를 사회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인민의 복리를 위한 역사적투쟁에서 맡고있는 중대한 책무를 깊이 자각한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의정도에 들어 갔다.

본시기자

### 평토의 천재

## 인민사수전, 비상방역전의 최전방에 서시여

외신보도에 의하면 지난 6월 8일 현재 세계적으로 5억 371만 9900여명이 《COVID-19》에 감염되고 632만 5360여명이 사망하였으며 2277만 4490여명이 치료를 받고있다고 한다. 세계에서 첫 《COVID-19》 감염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악성전염병으로 하여 목숨을 잃고 고생하고있는 것이다.

이와 대조를 이루며 공화국에서는 2년 3개월간 가장 안정된 환경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였으며 지난 5월초에 조성된 엄중한 비상방역상황도 짧은 시일에 안정적으로 억제 관리하는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이 놀라운 현실은 천리해안의 예지와 비범한 명도로 나라의 방역대전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절세위인께서 계시어 이루어질수 있었다.

돌이켜 보면 세계에 첫 《COVID-19》 감염자가 발생 하였을 때 그 위험성을 예측한 사람들도 이 파국적인 재난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공화국에서는 선제적이며 강력한 봉쇄를 엄격히 실시함에 대한 국가적 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오로지 인민의 생명 안전을 첫자리에 놓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선견지명의 조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 109(2020)년 2월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국가방역체계를 최대한 강화하여 초기부터 강력히 시행한 조치들은 가장 확고하고 믿음성이 높은 선제적이며 결정적인 방역대책들이었다고, 우리가 취하는 방역조치들은 단순한 방역사업이 아니라 인민보위의 중대한 국가적사업이며 당중앙위원회의 무거운 책임이라고, 모두가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 안전보장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이때부터 당과 국가의 중요 회의들에서는 언제나 인민의 생명안전문제가 첫 의제로 토의되곤 하였다.

악성전염병으로부터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켜내고 인민들의 생활을 돌봐주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도하여주시는 국가적 중요회의들이 그 얼마이고 취해진 사랑의 조치와 결정들은 그 몇번이었던가.

그때마다 공화국인민들의 가슴속에는 감격과 행복으로 설레이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자신들의 행복과 밝은 앞날이 있음을 더욱 굳게 확신 하였었다.

경애하는 그의 인민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인민을 위해 취해주시는 조치들이 얼마나 현명한가 하는것은 지난 5월부터 진행된 방역대전이 짧은 기간에 승세를 보이고있는 오늘의 현실을 통해서도 누구나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어렵고 힘든 세대들에 보내주시는 격려적인 소식과 깊은 밤 평양시안의 약국들을 찾으신 혁명활동보도소식은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의 심장을 또 얼마나 뜨거운 격정으로 뭉뚱하게 하였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은 악성전염병으로부터 인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거점의 불사약이 되었고 온 나라에 필승의 신심과 불가항력의 힘을 배배해주었다.

진정 인민 한사람한사람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전체 인민이 견제하고 견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것이 다 있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불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온 나라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 주고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나라의 방역안전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있으며 방역대전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릴 그날이 앞당겨지고있는것이다.

리은심

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인민군대 군의부문의 강력한 령령을 투입하여 평양시안의 의약품공급을 시급히 안정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도 하달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어렵고 힘든 세대들에 보내주시는 격려적인 소식과 깊은 밤 평양시안의 약국들을 찾으신 혁명활동보도소식은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의 심장을 또 얼마나 뜨거운 격정으로 뭉뚱하게 하였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은 악성전염병으로부터 인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거점의 불사약이 되었고 온 나라에 필승의 신심과 불가항력의 힘을 배배해주었다.

진정 인민 한사람한사람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전체 인민이 견제하고 견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것이 다 있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불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온 나라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 주고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나라의 방역안전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있으며 방역대전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릴 그날이 앞당겨지고있는것이다.

리은심

모든 사람들이 일치단결, 일치보조로 돌발적인 엄중한 비상방역상황을 일거에 역전시켜 안정적으로 통제관리하는 공화국의 방역전황을 이곳에 체류하면서 목격한 해외동포들속에서 격경과 찬탄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 《조국은 사랑으로 강합니다》

◇ 《조국에 체류해있는 나는 공화국경내에 뜻하지 않게 들이닥친 보건위기에 처음에는 불안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세계를 무성케 휩쓸고 수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린 이 악성전염병이 이제 우리 조국인민들에게 어떤 무서운 재앙을 들이우렸는가 하여 가슴을 조이며 방역대전의 날과 날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비상방역상황이 짧은 기간에 호전되어가는 놀라운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 조국에서 실시되는 방역정책이 얼마나 정당하고 오늘의 방역대전을 떠밀어나가는 일심단결의 힘이 얼마나 강위력한것인가를 특특히 보고 느끼였습니다.

특히 온 나라 인민들의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시어 중요당회들을 련이어 소집하시어 방역대전의 승세를 확고히 담보해나가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고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어렵고 힘든 세대들에 보내주시였으며 평양시안의 약국들을 밤길도 로해하시고 즉시적인 비상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인민의 모습을 뵈오며 정말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지금도 경애하는 그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은 온 나라 방방곡곡에 가닿고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인민들을 따듯이 보살피

고 인민들이 난관과 시련을 겪을 때면 더 따듯이, 더 가까이 가닿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런 자애로운 어머니를 평토자로 모시고 사는 조국인민들은 참으로 행복한 인민입니다.

그러니 뭐가 무섭겠습니까. 위대한 인민사랑이 그대로 기적의 불사약이 되고 불가항력의 힘이 되어 방역상황이 안정통제되고 방역대전의 승세가 확고히 담보되고있습니다. 조국은 사랑으로 강합니다.》

재중동포 김 세 은

◇ 《명도자와 인민이 뜻과 정을 나누면서 오늘의 격난을 뚫고 나아가는 조국의 강인한 기상은 어머니조국을 언제나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있는 우리 해외동포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있습니다.

일심단결의 불패의 힘으로 방역대전에서도 승세를 확고히 담보하고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장담다에서 련일 기적같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조국의 벽찬 모습은 민족의 밝은 메일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지난 수십년간 이루어보지 못한 반공화국압살의 어려움은 망상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고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내며 비렬하게 놀아내고있는데 부정이 어떻게 정의를 이길수 있었습니까. 승리는 우리 공화국에 있습니다. 나도 주체 조선의 해외공민인 긍지와 영예를 안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민족의 통일을 위한 애국성업에 적은 힘이나 마 바치겠습니다.》

재중동포 리영숙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평양지부 박수철대표가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결정서에 따라 전개되고있는 방역대전에서 빼놓아지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인민사랑과 방역전구마다에서 발현되고있는 공화국인민과 군대의 아름다운 덕과 정의 화폭들을 보며 받아안은 감동을 피력한 글을 발표하였다. 글을 소개한다.

# 북녘의 방역전장 - 그 감동의 현장을 보다

- 《 반 제 민 전 》 평 양 지 부 대 표 박 수 철 -

지금 공화국에서는 진국이래의 대동란이라고 할수 있는 전대미문의 방역 《전쟁》이 벌어지고있다. 이미 전세계를 휩쓴 악성전염병의 대확산사태가 얼마전 공화국의 경내에까지 들이닥친것이다. 한차례의 세계대전과도 맞먹는 악마의 전염병으로 일찌기 겪어보지 못한 비애와 슬픔, 고통을 감내한 인류는 조선이 직면한 엄혹한 현실앞에서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있다. 허나 놀랄게도 이 땅 북녘에 펼쳐진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전대미문의 대동란으로 인한 절망, 동요, 혼란? 아니었다. 그것은 미중유의 《사랑의 대전》이었다. 이 행성 그 어디에서도 접할수 없는,

눈물과 감동없는 대할수 없는 가장 격렬한 인민사수전, 가장 숭고한 애민 대전이었다. 국난의 시기때마다 언제나 승리와 기적의 원천이 되었던 평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힘,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는 북녘특유의 미풍이 인류전쟁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사랑의 대전》이라는 이 세상 가장 감동적이며 위대한 화폭을 펼쳐고 있는것이다. 행운스럽게도 그 전장의 직접적체험자, 목격자로 된 나는 지금 세인이 놀라고 전세계가 겪어보지 못한 그 감동의 한복판에서 서서 북녘의 진실을 전하고있다.

두는 자신들의 돌도 없는 친아들, 친자식들로 안겨왔기때문이다. 그렇다. 어이 총포성이 울리고 적탄알이 비발치는 곳만이 전장이라고 하랴. 비록 악성전염병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지만 그속에서 북녘의 군대와 인민은 한전호에서 생사를 함께 하고 피와 정을 나누며 온갖 역경과 불의를 맞받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성스러운 레일을 마중해가고있다. 순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름드리나무는 세찬 바람을 맞으며 억세어지듯 시련속에서 더욱 굳세어진 군인일치, 군민단결의 필승의 보검이 있어 공화국은 이제 이보다 더 가렬한 전쟁, 이보다 더 엄혹한 천만시련이 앞을 막아도 배심든듯 웃으며 해쳐갈것이며 오늘의 방역대전에서도 반드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리게 될것이다.

여 그 언덕에 보답하고자 산악같이 일떠섰다. 하여 세계를 휩쓰는 악성전염병사태로 그 어느 나라에서나 혹독한 경제위기로 아우성치고있을 때 위대한 사랑의

방역대전이 전개되고있는 북녘에서는 방역전투와 함께 사회주의건설의 대전역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이 련일 창조되었으니 이 또한 총적중의 대총적이 아닌가. 위대한 사랑은 무한의 기적을 낳는다! 북녘의 방역대전은 력사의 이 위대한 진리를 세계앞에 실컷으로, 엄연한 현기로서 아우성치고있을 때 위대한 사랑의

## 방역전의 나날에 받아안은 백뿔생일상

악성전염병과의 방역대전이 한창 벌어지고있는 공화국에 또 하나의 감동적인 화폭이 펼쳐져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었다. 인민의 운명과 생활,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로동당의 고마운 손길아래 준엄한 방역시련속에서도 백살장수자들이 늘어나고 은정어린 생일상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감동깊은 전설이 꽃피는것이다. 《COVID-19》의 최대피해자가 년로자들과 그리고 인한 사망자의 대부분이 로인들이라고 볼 때 그들이 악성비루스에 감염되지 않고 생명을 보존, 유지하는것만도 다행중의 다행으로 되고있는 때에 그 누가 꿈엔들 백살장수자들의 생일상을 상상이나 하였겠는가. 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만은 잊지 않으셨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백살장수자가 늘어나는것을 온 나라

## 《 사 랑 의 집 》

5월 15일. 이날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께서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회의를 마친시 그길로 평양시안의 의약품공급 및 판매정형을 료해하시려 깊은 밤 소문도 없이 수도의 약국들을 찾으시었다. 누가 꿈엔들 생각조차 하였겠는가. 수도의 평범한 근로자들이 리용하는 작고도 평범한 판매소, 더구나 무상치료제의 실시로 병이 나면 의례히 병원부터 찾는것이 레사사로 되어 전염병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레왕조차 드물었던 약품매매, 그러나 전대미문의 보건위기가 휩쓰는 이 시각 국무위원장의 심중에 그 약국은 단순한 약품판매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생명의 활력소였고 지금과 같은 방역전장에서 그 승세를 담보하는 돌도 없는 《타약고》였다. 하기에 그분께서는 악성전염병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던 그 시각 제일먼저 수도의 약국들부터 찾아오시었고 온 하루 수많은 환자들로 붐비며 말그대로 비루스진원지나 다름없는 그곳에서 위민헌신의 거룩한 밤을 보내신것이다. 직접어린 안색으로 약국들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존귀하신 영상을 TV화면으로 보이며 북녘민중들은 누구나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언제나 저 하늘의 태양으로 우러러

경모해마지 않은분, 그분께서 인민은 자신의 하늘이라시며 가장 평범하고 소박하고 이름없는 민생현장에 소문도 없이 오시었으니 정녕 이런 사랑의 전설이 그 어느 위민전의 갈피에 있어본적이 있었는가. 실로 그날 약국에 새기신 그분의 모습은 가렬한 전화의 나날 싸우는 병사들을 찾아 총포탄이 작렬하는 남녘의 그 위험한 수안보에까지 서슴없이 나가시었던 강철의 형장의 모습이었고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 적들의 총구가 조카리고있는 판문점에까지 나가시어 조국수호의 신념을 안겨주시던 선군령장의 위대한 모습, 적적으로부터 불과 수백백발에 안되는 오성산 까칠봉초소까지 오르시어 동무들의 뒤에는 고향으로 가는 길이 있고 고향에는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이 살고있다고 하시며 병사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더욱 굳게 부여해주시던 천출명장의 숭엄한 모습그대로였다. 그날의 위민행보와 더불어 북녘의 모든 약국들은 다시 태어났다. 단순한 약품판매소만이 아닌 악성비루스로부터 인민의 생명안전을 굳건히 지켜온 오늘의 《1211고지》로, 방역대전의 승전을 담보하는 최전방의 중요한 《병기창》으로 된것이다. 그래서 평범하지만 누구나 무심히 여길수 없는 약국이었고 자제로온 아버지의 따스한 체위가 금시라도 느껴지는 《사랑의 집》이었다.

## 잡 못드는 어머니의 눈빛

방역위기는 국가최중대비상사건이 발생했던 그 시각 평양에서 제일먼저 소집되었는 방역위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였다. 바로 이날의 회의에서 국가방역체계를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할데 대한 특단의 결정서가 발표되고 급후 방역전에서 전략적주도권을 쥐기 위한 긴급대책들이 상정됨이되었다. 마치 경내에 침습한 적을 남김없이 격파소멸하기 위한 군사작전회의를 방불케 하듯 방역위기문제를 의제로 한 중앙당회의와 국가적인 중대회의들은 이틀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중단없이 계속되었다. 사상초유의 국난의 시기 국가와 인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진행된 그 중대하고도 진지한 협의회의들이 얼마나 열렬한 애민헌신과 열사복무로 일관되었는가를 TV화면에 비춰진 밤 8시, 10시를 향해 쉬임없이 돌고돌던 회의장의 시계바늘이 그대로 실증해주고있었다. 삼라만상이 조은는 깊은 밤, 이른 새벽까지 인민을 위한 걱정과 시중, 피마르는 고민과 분투로 잠 못드는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의 불빛은 그대로 사랑과 헌신으로 지칠줄 모르는 어머니의 강인한 모습그대로였다. 그래서 북녘민중모두가 당을 어머니라 목매어 부르고 시 《어머니》를 그토록 사랑하며 즐겨 읊는것이 아니었던가.

... 놓치면 잃을듯 떨어지면 슬짐듯 잠결에도 그 꿈을 더듬어 찾으면 정겨운 시선은 밤잠도룩 내 얼굴에 머물러있고 살뜰한 손길은 날이 밝도록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나니 어머니 집말 나를 낳아 핏떡여준 그 어머니가... ... 그렇다. 인민의 생명안전을 국사중의 가장 최우선중대사로 내세우고 그를 위함이 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어머니 조선의 전파를 타고 전해지는 그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도 흉내낼수 없는 로동당특유의 민중사랑, 애민정치의 위대함이 있고 지력이 있는것이다. 세날의 전파를 타고 전해지는 인민 사랑을 위한 당의 중대조치들을 집할 때마다 사람들은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을 다시 꽃피워주려 열사복무의 한밤을 또다시 지새운 당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눈곱적시며 심장의 고백을 터치고 또 터치었다. 당중앙의 불빛, 그것은 폭풍이 광란할수록 사랑하는 자식들을 더욱 품에 껴안고 온밤 잠들줄 모르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어린 눈빛이고 언제나 행복과 번영, 밝은 미래를 펼쳐여주는 향도의 찬란한 별빛이라고.

## 총 포 성 없 는 《 전 장 》

지난 5월 16일 조선에서는 방역대전의 사활이 걸린 약품보장전투에 인민군대 군의부문의 강력한 력량을 긴급투입할데 대한 당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이 하달되었다. 피더운 가슴마다에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명의로 된 파견장을 지닌 별동대원들이 수도의 약국들에 기동성있게 전투좌지를 정하였고 그들이 차지한 진지들은 삼시에 방역전장의 화선병기창으로 전환되었다. 어디 가나 전투복차림의 인민군군의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리와 마을은 평화시기가 아닌 전지를 방불케 하였다. 비발치는 탄우도, 요란한 총포성도 울리지 않는 《전장》이었다. 허나 그곳에는 영웅간호원 안영애도 있었고 조국의 고지는 나의 고지라고 웨치며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다 바쳐 조국의 초토를 수호한 한계열, 조준실,

강호영 등 1950년대 전화의 그 모든 영웅전사들이 다 있었다. 하루에도 수백명이나 약국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치료방법을 알려주며 배식마저 잊고 질세없이 약품을 공급하다 쓰러졌지만 눈앞의 약물을 단 한알도 다치지 않는 병사, 자기에게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보내주신 그 약들이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가닿도록 해야 할 임무만 있을 뿐이라는 병사의 소박한 대답앞에서 약국에 모여온 사람들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하기에 지금 사람들 누구나 수도의 약국들에 위이 들어서지 못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미더운 화선군인들이 나타나 밤이나 지켜선 곳, 약보다 더 귀중한 친혈육의 꿈과 사랑을 부여주는 그곳이야말로 《피더운 전호》였고 그 전호가의 병사들도

## 저택의 상비약품을 평범한 민중들에게

자고로 나라의 온갖 귀한 약재는 궁중으로 흘러든다고 했다. 그러나 민중이 주인된 로동당시대의 오늘날 북녘의 방역전장에서는 수천년 세월 내려오던 전례를 깨뜨리는 경천동지의 애민전설이 태어나 민사람을 감복케 하고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마친시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께서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와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인민들에게 보내달라시며 몸소 저택에서 준비하신 상비약품을 본부당위원회에 기증하신것이다. 심장을 쿵쿵 울려주는 이 소식은 삼시에 바람처럼 전해져 온 나라는 커다란 총격과 감동, 격정의 눈물바다로 파도쳤다. 누군들 자신들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았으랴. 지금껏 들어본적도 있어본적도 없는 꿈같은 소식에 모두의 심정이 불등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랐고 북받치는 격정에 너도나도 눈시울을 적시었다.

령도자와 민중은 한가정, 한피줄이고 자신들은 언제나 당중앙위원회트락에 령도자님과 함께 있음을 그 어떤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폐부로 직접 절감케 한 순간이었다. 하기에 령도자님과 온 가정의 존귀한 체위가 어린 천금과도 같은 약지함이 황남의 평범한 가정들에 전달되던 그날 행운의 주인공들이 농장원 가족도, 평양에서 내려온 당중앙위원회 전달일꾼들도 아니 온 황남당이 령도자님의 그 하늘같은 사랑과 숭고한 덕담에 목이 매여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령도자님께서 보내주신 귀중한 약품들은 그대로 온 나라를 일으켜세우는 기적의 불사약이 되고 그 한알한알은 그대로 보이지 않는 악마의 비루스를 무자비하게 소멸해버리는 방역포탄이 되었다. 땅처럼 말이 없고 순박한 협동벌의 평범한 농민들만이 아닌 황남전역이, 북녘의 방방곡곡이 피보다 진한 위대한 어머니의 육친의 사랑에 말그대 너도나도 눈시울을 적시었다.

## 방역전장에 차넘치는 사회주의향기

북녘의 방역전장에서는 덕과 정의 진한 향기가 풍기어 사람들의 심금을 후둑게 해주었다.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께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까지 민중들에게 보내주신 감동의 사연은 공산주의미덕, 미풍을 배양시키는 활력소로 되었다. 이를 시점으로 북에서는 어려운 때 서로서로 격정해주고 위해주고 도와주며 어깨걸고 난관을 함께 이겨나가는 특유의 미덕과 미풍이 더 높이 발휘되고있다. 각지의 민중들은 저저마다 조국과 사랑하는 동지들, 화목한 이웃들과 운명을 함께 할 의지를 안고 비록 낯은 아니라도 똑같이 쓰자며 생활필수품들을 나누어주고있다. 북녘의 애민전장에서는 한가정에 차레진 지원물자가 서로서로 양보하는 마음들을 위해 온 하루 주민지대를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왔다는 미담도 생겨나고 가정에서 보관했던 의약품과 저축한 량곡, 자금을 의뢰기관들에 기증하고 전쟁로병, 영예군인가정들과 어렵고 힘든 세대들에 보내주었다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레사사로 되고있다. 흔히 어느 사회에서나 어려움이 조성되면 너보다 나부터 생각하게 되는것이 인간심리이다. 인간고려와 도덕이 파멸되고 인정이 망그러지면 사랑이 중요로 쉽게 변하는것 또한 달리는 뿔수 없는 자본사회의 보편성이다. 하지만 북녘에서는 시련과 난관이 증철될수록 남을 위해, 집단을 위해 한가지라도 좋은 일을 더 찾아하기 위해 애쓰는 훌륭한 인간들이 더 많아지고 사회와 국가를 위한 미덕과 미풍이 더 높이 발휘되고있다. 실로 감동의 극치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돕고 위해주는 북녘사람들의 덕과 정은 그 어떤 최선의 학과과학기술보다도 더 위력한 방역대승

의 비결, 담보로 된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제일가는 공산주의적미덕과 미풍이 간고한 방역대전에서 더 높이 발양되고있는 공화국의 사회주의화원이 만인의 동경을 모으며 인류의 리상향으로 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리치이다. ※ ※ ※

악성비루스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은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고있다. 승리는 애민으로 치르는 전쟁, 사랑으로 이기는 전쟁을 하고있는 북녘에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이 성스러운 애민전선의 진두에 서시어 승리의 진격로를 몸소 열어나가게하셨다. 지금 공화국의 인민과 군대는 애민정치의 최고화신인시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께서 인민사수의 최전방에 계시고 향도의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으며 오늘의 방역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것을 확신하며 노래 《당여 그대 있기에》를 목매어 부르고 또 부르고있다.

... 천만시련 앞을 막아도 눈비바람 분데도 그대만을 믿고 가는 길 우리는 두렵없어라 어머니라 부르는 조선로동당이 있기에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리라 그대 운명도 조선로동당이여 우리 운명 향도의 당이여 꿈같이 아름다울 레일을 믿노라 아 그대 있기에





# 덕과 정으로 화복한 사회주의대가정

덕과 정! 이 말은 공화국의 그 어디를 가나 흔히 들을 수 있는 레사로운 말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공기처럼 흐르는 공화국의 사회주의대가정에 넘쳐나는 덕과 정은 오늘날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5월 14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지도하시며 어려운 매일수룩서로 돕고 위해주는 우리 사회의 덕과 정은 그 어떤 최신의 과학과 기술보다도 더 위력한 방역대응의 비결, 담보로 된다. 모든 당조직들이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도 흥내낼 수도 없는 우리의 제일가는 재산인 덕과 정을 미풍이 어렵고 값고한 방역대전에서 더 높이 발양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다.

국가비상방역사업이 최대비상방역체제로 이행된 지금 공화국인민들속에서 오가는 덕과 정은 그 어느때보다도 뜨겁다.

인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들이 련이어 취해지는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며 가정에서 저축하던 자금과 의약품, 식량과 부식물, 생활필수품들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세대에 돌보아주는 아를

다른 소행을 발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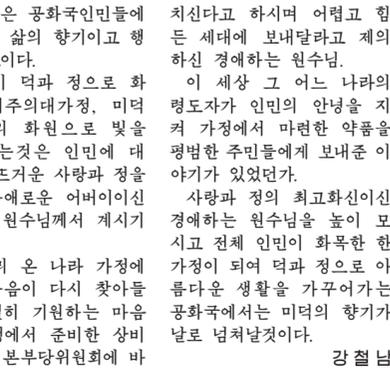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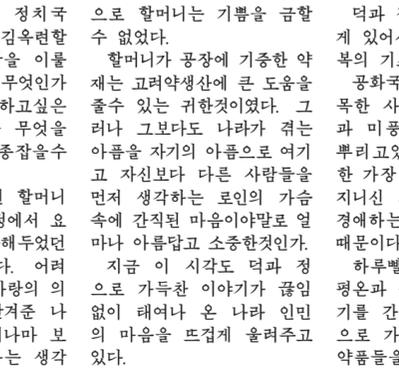
얼마전 선교고려약공장으로는 평양시 선교구역 선교2동에서 살고있는 김옥련할머니가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고려약생산에 쓰이는 귀한 약재가 들려있었다.

공장의 일꾼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할머니가 약품생산에 써달라고 한 약재는 그만큼 어디서나 쉽게 구할수 없는 희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다면 여기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여있는 것인가.

지난 5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소식에 접한 김옥련할머니는 오래도록 잠을 이룰수 없었다. 자기도 무엇인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종잡을수 없었던 것이다.

며칠동안 고심하던 할머니의 뇌리에 문득 가정에서 오긴하게 쓰려고 간수해두었던 고골약재가 떠올랐다. 어려운 세대라고 하며 사랑의 의약품도 제일 먼저 안겨준 나라의 은덕에 조금이나마 보답할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



으로 할머니는 기쁨을 금할수 없었다.

할머니가 공장에 기증한 약재는 고려약생산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귀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나라가 겪는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의 가슴속에 간직된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

지금 이 시각도 덕과 정으로 가득찬 이야기가 끊임없이 태어나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덕과 정은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삶의 향기이고 행복의 기초이다.

공화국이 덕과 정으로 화복한 사회주의대가정, 미덕과 미풍의 화원으로 빛을 뿌리고있는것은 인민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과 정을 지니신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을 본부당위원회에 바

## 부패한 사회 인륜이 사멸해가는

최근년간 남조선에서 가정폭력과 살인 등 각종 범죄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가족이나 배우자 등에 의한 강력범죄행위가 급속히 늘어나고있어 사회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의 경찰청이 발표한 데하면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369건중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사건은 100여건으로 2020년 59건보다 급격히 늘어났다고 한다.

또한 직계가족에 의한 폭행건수는 총 6,292건, 상해건수는 총 1,598건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가족인것으로 하여 피해사실을 숨기는 일들이 적지 않아 전체 살인이나 폭행, 상해 등의 사고건수는 더 많을것이라고 한다.

2021년 8월 고등학교 학생들이 10대의 형제가 친할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하여 흉기로 수습차체 찔러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2021년 9월에는 전라남도에서 40대의 남성이 직업을 구하라고 요구하는 70대 고령의 부모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말아난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11월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30대남성이 동거 중인 여성을 흉기로 찌른 후 아바타고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하였다.

인륜도덕의 동토대로 되어가는 남조선사회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범죄사건들이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는 『돈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돈때문에 사회전체에 부정부패가 상식화되고 일상화되었다. 누구나 할것없이 모두 돈, 돈 하면서 산다. 권력의 자리에 타고앉은 자들은 백성들의 돈을 자기 호주머니안에 끌어모아 사리사욕을 채운다. 이렇게 살것

자들의 부정부패때문에 사회가 더러워지고있다. 말자제로 애정과 사랑으로 뭉쳐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가정과 학교, 사회는 이미 시체처럼 차가워지고있으며 모두 돈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되었다는 내용이 실려있었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고 약육강식의 생활방식이 조장되어 이웃들간에도 칼부림이 벌어지고 지어 부모와 자식 등 혈육간에도 친구, 애인사이에도 서로 죽일대기를 하는 말세기적생활풍조가 지배하는 썩고 병든 사회가 다음아닌 남조선사회이다.

사랑과 정, 인륜도덕이 사멸된 사회, 극단한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남조선에서 차디차고 매혹스런 세상을 저주하며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자살자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인간의 따뜻한 사랑과 정이란 찾아볼수 없는 비인간적인 사회, 일신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 서로 물고물고 반목질시하며 몸서리치는 악행도 서슴지 않는 이런 부패한 사회에 어떻게 사람들의 참다운 삶과 행복이 있을수 있겠는가.

본사기자



얼마전 우리가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삼지연시인민병원을 찾았을 때였다.

이곳 병원의 소화기내과에서는 한 여성환자의 병진단을 위해 평양의학대학병원과 먼거리의료봉사체제에 의한 협의회를 하고있었다. 알고보니 그 여성환자는 평범한 농장원이었다. 우리는 한동안 먼거리의료봉사에 의한 협의회를 지켜보았다. 화면에 비쳐진 평양의학대학병원의 의료일꾼들은 삼지연시인민병원 의료일꾼들에게서 환자의 병증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청취하면서 진지하게 협의를 이어갔다.

얼마후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내려졌다. 삼지연시인민병원 의료일꾼들의 얼굴에도, 여성환자의 얼굴에도 희망의 빛이 어렸다.

평양과 수천리 떨어진 이곳에서 평범한 근로자들

이 평양의학대학병원의 유능한 의료진과의 항시적인 련계밑에 병치료를 하고있는 모습을 보노라니 생각되는 것이 많았다.

협회가 끝난 후 먼거리의료봉사가 정말 좋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소화기내과 과장은 전곡적범위에서 환자들이

들과 중앙병원 의료진들과의 련계밑에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대책을 세울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우월한 먼거리의료봉사체제가 정연하게 세워진 것으로서 감동없는 들을수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가.

함경북도 경성군인민병원과 평양시인민병원 의료일꾼들은 먼거리의료협의의후 출생한지 얼마안되어 중태에 빠졌던 한 노동자의 자식을 기적적으로 회복시켰고 개성시의 한 소년도 시인민병원과 육류야동병원 의료일꾼들이 진행한 먼거리의료봉사를 받고 두번다시 대지를 밟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소화기내과 과장은 말하였다.

『우리 나라에 먼거리의료봉사체제가 세워져 평범한 근로자들 누구나 침단의

로봉사의 향유자가 되고있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조선의 먼거리의료봉사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새겨들수록 첨단기술에 의거한 전국적인 먼거리의료봉사체제가 확립되어 외진 산골에 살든, 물에서 멀리 떨어진 섬마을에 살든 중앙의 유능한 의료진단의 방조속에 신속히 치료를 받는 인민복 받은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으랴 하는 생각에 눈물이 짜릿해졌다.

중앙병원들과 전국의 도, 시(구역), 군인민병원들을 망라하는 먼거리의료봉사체제, 이것이야말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 불같은 헌신으로 인민모두를 따듯이 품어안아주시는 철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결정체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가슴은 후더워올랐다.

본사기자 흥범식

력사에 기록된 감동깊은 인민적시책들

전화의 불길속에서 태어난 전반적무상치료제

공화국에서 평양시기도 아닌 전정시에서 채택실시된 전반적무상치료제는 세인을 놀라운 경이적인 사변이었다.

한편의 자금이랄라 전생승리에 둘러싸일 때에 인민들의 건강을 위해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도록 한선철세위인의 헌신이 뜨거운 인민사랑때문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미 항일혁명투쟁시기 유격근거지들에 병원들을 세우고 근거지인민들에게 대한 무상치료를 하도록 하시였으며 해방후에는 력사적인 《20개조실감》에서 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하여 밝히시고 1947년부터 노동자, 사무원들과 그 부양가족들에게 국가사회보험법에 의한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성공적으로 실현됨으로써 공화국인민은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는 행복한 인민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후에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전반적무상치료제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현명하게 이끄셨다.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자립적민중경제의 토대가 든든히 마련되었으므로 보건사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충실히 된 시기인 1960년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여오던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완전히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하여가 세상에 공포되었으며 1953년 1월 1일부터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었다.

가렬한 전쟁의 포화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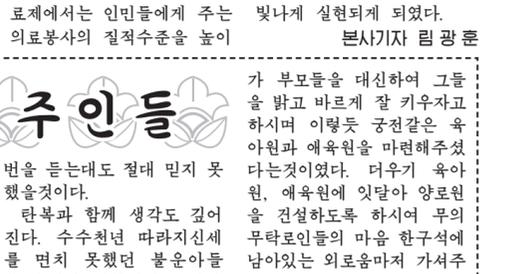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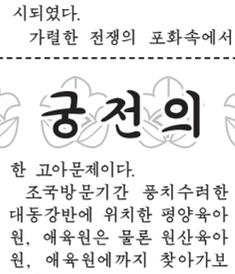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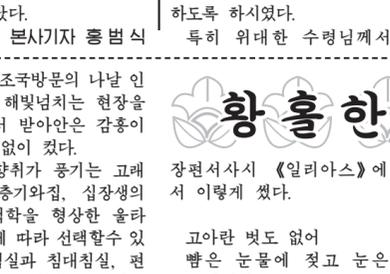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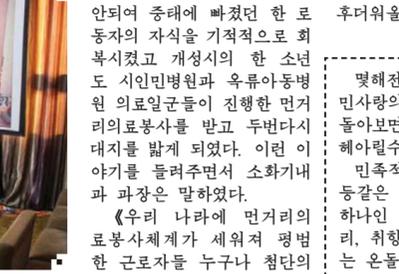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성공적으로 실현됨으로써 공화국인민은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는 행복한 인민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후에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전반적무상치료제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현명하게 이끄셨다.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자립적민중경제의 토대가 든든히 마련되었으므로 보건사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충실히 된 시기인 1960년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여오던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완전히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하여가 세상에 공포되었으며 1953년 1월 1일부터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었다.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에서는 인민들에게 주는 의료봉사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것이 기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또한 도시로부터 농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지역에서 선진적의료봉사체제인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의학의 전문화를 실현하는것은 수령님의 주체적의사사상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라고 하시며 의료봉사의 전문화수준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도록 하시였으며 제약 및 의료기구공업도 급속히 발전시키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공화국에서는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빛나게 실현되게 되었다.

본사기자 림광훈



## 조선특유의 가장 위력한 정치적무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적인 사변들을 안아오는 공화국의 자랑찬 모습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이 찬양하고있다.

나이제리아의 인터넷포털사이트 《더 인사이트》는 력사의 난파도를 헤가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정한 항로를 따라 사회주의강국을 목표로 힘있게 전진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하다면 조선은 떠날것은 철저히 고역연은 무엇인가. 그것은 령도자와 인민이 혈연의 정으로 이어진 일심단결이다. 일심단결이야말로 그 어느 나라도 흉내낼수 없는 조선특유의것으로서 가장 위력한 정치적무기이며 이 나라를 투쟁짓는 정확한 초점이다.』

인도네시아의 인터넷통신 《르포》는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진실한 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가시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에게 자신의 정을 짙고리 쏟아부으시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멀리에서도 령도자의 영상을 한번 봐주는것을 더없는 행복으로 간주하고 령도자를 받들어 모든것을 바치는것을 보람으로, 궁지로 여기는 조선인민의 인생관은 세인을 놀래우고있다.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은 일심단결의 원천이고 역사의 역경속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게 하는 원동력이며 조선의 제일가는 힘이다.』

방글라데시신문 《데일리 인다스트리》

는 《조선사람들은 인민을 위해 한가지라도 더 많은 일을 하시려는 령도자의 모습에서 따뜻한 사랑과 합없는 정을 느끼고있다. 하기에 그들은 령도자의 두리에 철뿔같이 뭉쳐 시련과 난관을 기어오 이겨내려는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곤 한다.』

『모든것을 바치는 조선사람들은 령도자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끌며 살아가고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불행한 일이 있어도 한가정처럼 화목하게 살아가는것이 바로 조선식사회주의이다.』고 하면서 이런 사랑의 힘, 덕과 정에 힘입어 떠날것은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의 조건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회주의의 꽃이 피어날 때까지 이 나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매진하고있다고 썼다.

『공공신문 《러 빠트러오드》는 조선의 국공을 논할 때 먼저 꼽아야 할것은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이라고 하면서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국가정치가로서뿐 아니라 자기 운명을 맡긴 친아버지로, 은인으로 따르고 열렬히 흠모하고있다. 조선의 국공에서 특이한것은 서로 위해주는 사회적풍조이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구호밑에 아름다운 미풍들이 날마다 꽃피어가고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조선에서 일어나고있는 모든 기적과 변혁은 이 나라의 특이한 국공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고 전하였다.

본사기자

황홀한 공전의 주인들

장편서사시 《일리아스》에서 이렇게 썼다.

고이란 빛도 없어  
밝은 눈물에 젖고 눈은  
내리깔려

...  
치량한 그 시구절이 불현듯 생각나는것은 조국에서 받아들인 또 하나의 크고큰 감동때문이었다. 조국방문기간에 꼭 가보고싶었던 곳들중의 하나가 육아원과 예육원이었다.

인류사와 더불어 불행의 대명사로 되어왔고 오늘날도 방랑의 동여되어 되고있는것이 고아이며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도 해결하지 못하고있는 난문제 또한 고아문제이다.

조국방문기간 품치수려한 대동강변에 위치한 평양육아원, 예육원은 물론 원산육아원, 예육원에까지 찾아가보았다.

황홀하기 그지없는 공경같은 요람들을 돌아보면서 이름 못할 감동속에 할 말을 찾지 못했다. 하나같이 영양과 발육상태가 좋고 얼굴에 그늘 한점 없이 뛰어노는 귀여운 원아들을 깨닫고 여기와가 친해봐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들었다.

채벌추수들의 별장도 울고갈 이런 눈부신 공전들이 부모없는 아이들의 보금자리라니, 직접 보지 않았다면 백

한 고아문제이다.

조국방문기간 품치수려한 대동강변에 위치한 평양육아원, 예육원은 물론 원산육아원, 예육원에까지 찾아가보았다.

황홀하기 그지없는 공경같은 요람들을 돌아보면서 이름 못할 감동속에 할 말을 찾지 못했다. 하나같이 영양과 발육상태가 좋고 얼굴에 그늘 한점 없이 뛰어노는 귀여운 원아들을 깨닫고 여기와가 친해봐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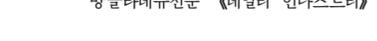
채벌추수들의 별장도 울고갈 이런 눈부신 공전들이 부모없는 아이들의 보금자리라니, 직접 보지 않았다면 백

가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밝고 바르게 잘 키우자고 하시며 이렇듯 공전같은 육아원과 예육원을 마련해주셨다는 것이었다. 더우기 육아원, 예육원에 잇달아 양로원을 건설하도록 하시어 무의 무라로인들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외로움마저 가져주시고있다고 하니 얼마나 정겹고 살뜰하고 세심한 사랑의 세계인가.

태양의 열과 빛에도 한계가 있어 음지와 동토대가 있지만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의 사랑에는 음지도 동토대도 없다. 자식이 없어도 외로움을 모르고 부모가 없어도 실음을 모른다는 말은 성경이나 신화에 없다.

인민이 사는 별나라이다. 정말 조국인민들이 부럽고 그들이 누리는 락이 신비스럽기만 하다.

재미동포 김지영



# 시론 속검은자들의 무지하고 고약한 낱말질

지금 공화국에서는 악성전염병과의 방역대전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악성비루스의 류입으로 최대비상방역체계가 실시된지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전염병전과상황이 억제되고 방역전에서의 승세가 확고히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동족대결에 혈안이 된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공화국의 이러한 현실을 외국하고 혈통은 궤변과 약당을 매일같이 늘어놓으며 비렬하고 추악한 대결광기를 부리고 있다.

초기에는 《북에서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 새로운 (평양발 변이비루스)가 생길 수 있다》고 떠들어대더니 공화국에서 너무도 빠른 기간안에 악성전염병과 상황이 상환이 되자 이번에는 또 《민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곱고들다 못해 얼토당토않은 《사망자속소설》, 《봉괴설》까지 내 돌리고 있다.

이것은 공화국에 대한 극도의 무지로부터 출발한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우리 공화국에 대해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

인민대중을 제일 귀중한 존재

로 내세우며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인민대중 제일주의정치가 실시되고 령도자가 온 나라 대가정의 친어버이가 되어서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참다운 사회주의나라가 바로 공화국이다.

하기에 악성비루스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공화국에서는 당과 국가가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수호하는것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전대미문의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초 악성비루스류입이 확인된 즉시 최대비상방역체제로 전환하여 지역별봉쇄와 단원별격벽, 국가적인 의약품보장대책 등 초특급비상방역조치를 신속히 취하였다.

이 나날 경여하는 원수놈께서는 몹스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어렵고 힘든 세대들에 보내주시었으며 깊은 밤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악성비루스전과위험이 절계 감도는 악약들을 찾아오시어 의약품공급 실태를 직접 로해하시고 즉시적인 대책을 취해주셨다.

하늘도 감복할 그 숭고한 인민사랑이 기적의 불사약이 되고 필승의 신심과 불가항력의 원천이 되어 이 나라 모든 가정들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고 보살펴주게 되었다.

공화국에서 세상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그토록 짧은 기간에 악성전염병확산이 억제되고 방역전에서 승세가 확고히 보장될수 있는것은 비상방역대전의 최전방에서 계시며 가장 용바른 방역정책과 적시적인 대응책들을 제시하시고 불보다 뜨거운 인민사랑으로 방역대전을 이끄신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전제 인민이 그의 두리에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정치사상적 우세, 특유의 조직력과 단결력이 안이한 훌륭한 결실이다.

이런 경이적인 현실을 약육강식의 사고방식과 황금만능의 가치관에 찌들대로 찌들어있는 남조선의 보수패당으로서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인정하기는 더욱 괴로울것이다.

하기에 극도의 개인주의와 반인민적정치가 지배하는 남조선사회에서 수천수만의 감염자가 세로 발생하고 수백수천명이 무리로 사망하고있으니 보고듣는것이란 비애와 절망, 고통의 울분밖에 없는 보수패당이 그 몽매한 안목과 자대로 북의 현실을 평가하고 재어보며 《민기 어려운 주장》이니, 《사망자속소》니 하

는 궤변과 억측을 꺼리낌없이 내뿜고있는것이다.

눈을 편히 뜨고도 공화국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려있어도 락관의 웃음소리와 비애의 울음소리를 분간 못하는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실로 가공스럽게 그치었다.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것은 공화국의 보건상황과 현실을 외국하고 혈통은 남조선보수세력의 궤변과 망발이 무지와 무식의 한계를 넘어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의와 대결흥심에 기인된것이라는데 있다.

동족이 악성전염병으로 불행과 아픔을 겪고있으면 함께 가슴아파하고 불행을 가지고 일어선다면 다행스러워하며 기뻐하는것이 인자상이고 혈연적감정일것이다.

그러나 대결병에 중독된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상전의 반공화국제재책동에 구구 추종해나서는것도 부족하여 악성전염병 문제까지 동족대결에 악용하고 있다.

《북이 확진자, 사망자수를 축소한다.》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은 공화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악성전염병으로 쓰러지기를 바라라는, 그래서 내부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제도가 무너지

기를 바라는 대결병자들의 고약한 속통이 그대로 비껴있다. 또한 인민사랑, 인민보위, 인민사수가 정책, 국책으로 실시되고 악성전염병사태에서도 아름답고 화목한 덕과 정이 더 활짝 꽃피어나는 공화국의 실상을 외국, 남조하여 공화국을 동정하는 남조선민심을 오도하고 저들의 반인민적정책에 대한 비난과 불만을 잠재워버리는 비렬한 흥심도 엿보인다.

그처럼 비렬하고 속검은자들이 그 무슨 《방역지원》과 《보건협력》라령을 늘어놓고있으니 실로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것들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동족대결에 환장한 남조선보수패당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달을 보고 좇아내는 개무리처럼 인간적 조보적인 체제도 갖추지 못한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이 제아무리 동족에 대한 헛나발을 불어대도 공화국의 밝은 모습은 가리울수도 멀쩡할수 없다.

머지않아 북녘에서 인민사수전, 비상방역대전의 승전개가가 높이 울려 퍼질 때 터무니없는 반공화국약당들을 내들린 남조선보수패당은 세계전역에서 또다시 개교망신을 당하게 될것이다.

정필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 하와이 연안에서 6월말부터 8월초까지 《림팩》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게 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도발적인 전쟁연습에 남조선호전광들은 대형상륙수송함과 이지스구축함, 잠수함 등 전력 최대규모의 해상전력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남조선군부는 8월중순부터 9월중순까지 오스트랄리아의 다윈 및 앵벌리기에서 진행되는 인디아태평양지역 항공군투력합동연습에도 공군부력과 병력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과 대조선군사적 압박공조실현의 돌격대, 대포망이 되어 날뛰는 특종충동들의 망동이 아닐수 없다.

미국이 남조선 및 추종국들과 함께 태평양상에서 정격적으로 벌리고있는 《림팩》합동군사연습의 기본과념이 공화국이라는것은 이미전에 폭로된것이고 미국도 그것을 구태여 숨기지 않고 있다.

남조선군부가 이런것을 알면서도 이 범법적인 전쟁발장난에 참가하는것자체가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며 도전이다. 남조선호전광들 스스로가 이번 《림팩》훈련에 참가하는 잠수함에 탑재된 순항미사일은 초정밀타격이 가능하다. 대형상륙함도 파견하여 상륙훈련도 계획중이라고 하면서 북조선계 공격능력을 더욱 속달하려는 흥

심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남조선군부들이 인디아태평양지역 항공군투력연습에 참가하는것 역시 저들의 북침전쟁기도를 실현에 옮기기 위한 예비전쟁발장난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상전이 부른다면 죽을데인 살데인, 지척이건 천리밖이건 가림없이 달려가 불장난에 매달리는것이 남조선호전광들의 천미골풍기질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은 인디아태평양지역에서 벌어지는 다국적련합훈련들에 무력을 동원하여 적극 참가하려고 설쳐대는것을 통해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이 끝수까지 내건 대결미치광이, 불을 즐기는 호전광, 천미전쟁사환공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제 처지가 어떤지도 모르고 설치는것처럼 어리석은 행태는 없다. 미국의 총알받이에 불과한 남조선호전광들이 절대적 힘을 보유하고 군사적강세를 펼치는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가스통에도 전쟁대결광기를 부리고있는것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그속에 들어가는 망출한 개기이다.

외세와 작당하여 동족에게 불질하려고 날뛰는 남조선호전광들은 저들의 무분별한 망동이 무서운 참변을 불러오고있다는것을 똑바로 알고 자숙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 동족대결광들의 망출한 개기

#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

최근 남조선군부의 신임군 총우두머리들이 취임식이라는 데서 《북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니, 《군건설 한미동맹에 토대한 전투태세강화》니, 《훈련도 훈련하는 강군건설》이니 하는마위의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리고 있다. 이런 속에서 남조선국방부자들은 《인민군과 북침권을 주적》으로 규정된 장병정신교육교과를 각 부대들에 배포하는 놀음까지 벌여놓았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이러한 행위는 공화국과의 불상충적인 적대관계, 군사적대결을 공공연히 선포한 도발

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공화국을 《적》, 그것도 《주적》으로 규정하고 그 무슨 《대응》과 《전투태세강화》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은 동족을 단합과 통일의 대상, 운명을 함께 할 동포가 아니라 오직 소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있는 윤석열호전부리들의 반공화국적대의식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미국을 등에 업고 어떻게 해서나 동족을 해치고 체제대결의 망상을 실현해보려고 어리석게 날뛰는것이 바로 윤석열패당이다.

윤석열이 《선제타격》망발을 공공연히 퀘치면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확대하고 미전략자산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려 하는것도 이러한 흥심에 따른 도발망동이다.

공화국은 이미 남조선을 주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밝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호전광들은 공화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군사적대결에 광분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의 전쟁사환공, 대포망이 비롯한 윤석열호전부리들이 핵보유국,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초강대국을 향해

도전의 불을 걸어오는것이야말로 제 죽을줄 모르고 설치는 미친자들의 개기, 범 무서운줄 모르고 설치하는 가소로운 광풍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남조선호전광들은 어리석게 공화국을 자극하고 건드려 버린 망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패당은 무분별한 대결책동이 가져올것인 전쟁위상향의 악화와 처참한 자멸이라는것을 이제라도 머리속에 똑똑히 새기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황금숙



# 생존권과 민주주의적권리를 되찾기 위한 이로운 투쟁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들속에서 《정부》의 친재벌, 반로동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이 이 날을 따라 고조되고있다고 한다.

지금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들은 윤석열패당이 집권하자마자 로동계의 요구를 무시한채 친재벌, 반로동정책 등에 매달리고있는데 대해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반로동정책》, 《사회적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행위》, 《재벌을 위한 후안무치한 개악》이라고 단죄규탄하며 강서 부분별파업을 비롯하여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하고있다고 한다.

지난 5월 한달동안만도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에 소속된 수만명의 로동자들이 총파업을 단행하고 거리투쟁을 벌리었다. 남조선의 로동운동단체들은 《정부》의 반로동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앞으로 더욱 고조시킬 결의를 피력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날로 고조되는 이들의 투쟁은 로동자들의 초보적인 생존권과 민주주의적권리를 되찾기 위한 정당하고도 이로운 투쟁이다.

사실 물질적부의 창조자는 로동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다. 그들의 창조적 땀을 떠나는 사회의 발전이 있을수 없다.

그런데 남조선현실은 어떠한가. 사회적부의 창조자이지만 제일 친재벌고 후사당하는것이 로동자들이다.

특히 윤석열패당이 집권하면서 로동자들은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여지없이 짓밟히게 되었다. 윤석열은 《대통령》선거때부터 재벌의 편에서서 로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짓누르려는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주 52시간로동제》는 비현실적인 제도이므로 철폐하고 로동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떠들어 로동자들의 분

노를 자아냈는가 하면 도로 포장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현장에 가서는 로동안전조건을 보장하지 않고 탐욕적인 리윤추구만 앞세우다 사고를 천 기업을 추종할 대신 로동자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간단한 실수로 죽었다고 발언하여 로동계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로동자들이야 죽든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재벌들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윤석열의 본색은 권력의 자리에 오른 다음 더욱 로폭적으로 정책이 반영되어 로동계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지난 5월 윤석열패들이 생존권을 위한 민주로총의 합법적투쟁을 《불법》으로 몰아대며 경찰을 내몰아 민주로총관계자 30여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죄목을 들춰워 구속한데 이어 민주로총 전국택시로동조합위원장과 사무처장의 사무실과 운전회기들에 대한 압수수색놀음을

벌려놓은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윤석열의 눈에는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나선 로동자들이 다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자로 보이는 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각 지역에서 로동운동단체들이 기자회견, 항의문전달, 거리시위 등을 벌리면서 《윤석열의 집권으로 공안시대가 되돌아왔다》, 《윤석열정부는 공안탄압으로 생존권투쟁을 벌리는 로동자들의 일에 자갈을 물리려 한다》고 성토했고 투쟁기세를 올리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로동자들을 한갓 치부를 위한 기계, 마스처럼 여기는 윤석열의 집권으로 남조선로동자들의 처지가 더욱 암담해질것이라는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다.

생존권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남조선로동단체들의 투쟁은 앞으로 더욱 고조될 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 한 달과 5년

남조선에서 《국민통합》과 《새로운 출발》을 떠들며 보수 《정권》이 출현한지 한달밖에 안되었다. 하지만 사회 각계층속에서는 벌써부터 《윤석열정부는 짝수가 노랗다》, 《기대보다는 점점 더 실패정권으로 될 우려가 높아졌다》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있다.

정치문의한, 정치코흘리개인 윤석열의 우직하고 설익은 국정운영태에 망연자실한 남조선민심의 마땅한 단죄라고 해야 할것이다.

못된 버리지 장관박달에서도 모로 긴다고 윤석열이 《대통령》관두를 쓰고하는것이란 모두가 민심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는것 뿐이다.

검찰총장을 해먹을 때 끼고있던 검찰패들을 권력기관에 대대적으로 박아넣고 정적거와 검찰통치방식수법에 매달리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물론 정보원에 도 자기의 검찰총장들을 대대적으로 등용하였다.

특히 자기의 최측근을 거르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한 후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기구와 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안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구를 내오게 하였는가 하면 이전 《정권》의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었던 검사들을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의 핵심직무들에 들어맞고 배치되었던 각종 수사기구들도 다시 내냈다.

뿐만아니라 당선직후 《국정은 축적의 산물이다》,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은 개선해나가겠다》며 열매발치고는 취임하자마자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 《대북정책》, 외교정책은 대실매이라고 혈통으며 핵

심정책들을 모조리 뒤집어엎는 놀음도 벌여놓았다.

또한 이전 《정권》에서 일을 했다고 하여 현직관료들을 강제로 내쫓는가 하면 보수단체들이 전 집권자의 집 앞에서 벌인 소란을 피우고있는것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외면하면서 이전 당국의 《치적》지우기에 열을 올리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층은 윤석열이 앙갚음의 칼날을 번득이고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망동을 《로폭적인 정치보복》, 《위험한 검찰독주》로 규탄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이 소통이니, 현장방문이니 하면서 너넨네까지 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못해 공무시간에 《대통령》사무실에서 애완용개를 안고 사냥을 찍어댄 사실, 때없이 먹자판을 벌여놓고 아내것들에게 내맛에 술도 마시면서 일하라는 상식이하의 지시를 하는가 하면 밤늦게까지 술을 퍼마시고 만취되어 온갖 추태를 부린 사실 등도 등장나 《정말 한가한 대통령》, 《일군이 아니라 술꾼, 놀새이다》는 지탄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있다.

오죽했으면 보수패들속에 서까지 《검찰식사고를 버려야 한다》, 《만취되었던 윤석열은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아야 타당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겠는가.

남조선 각계층이 막돼먹기 그치지않은 윤석열의 절없는 꼴을 5년간 지켜봐주어야 한다니 기가 막히다. 《검찰공화국》에서 일방적인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해나가는 윤석열의 아마추어식행태로 경제, 민생은 물론 안보도 엉망진창이 되고 사회적갈등

과 불안만 격화될것이라고 탄식하고있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시작을 보면 끝을 알수 있다고 윤석열의 집권 한 달을 통해 앞으로의 5년을 미리 진단할수 있다.

집권하여 얼마 안되는 기간에 윤석열이 보인 갖가지 몰상식하고 미련한 행태들은 이를로 피하려다 범을 만난 격으로 남조선인민들이 그야말로 최악의 우환거리, 골치거리가 부닥쳤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독재적인 사고와 검찰만능독주,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무지막친한 박해와 탄압, 주재잡기에 이렇이 난 윤석열때문에 앞으로 남조선정국은 량상국이 되고 안보와 민생이 벼랑끝에 이르게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변하다.

본사기자 배영일

# 체면을 세워보려는 공여지책

한 대중국전략은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패권을 쥐려는 미국의 흥심을 그대로 드러냈것이라고 할수 있다.

하기에 미국의 대중국전략이 발표되자 중국은 외교보에 발표된것을 중국은 외교보에 퍼뜨리고 《중국의 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며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대내외정책을 비난하는것이며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탄압함으로써 저들의 패권과 강권을 수호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중국 국무원은 《미국주관관의 연설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것으로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가로막으려는 미국의 본성을 다시금 폭로해준다. 미국의 주장은 완전히 후백을 전도한

것이다. 그 누구도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려는 중국인민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 막강한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국의 강경한 립장을 발표하였다.

중국의 《인민일보》도 사실에서 《맹정적사고를 고수하며 중국을 압박해 미국의 패권을 보호하려는 집요함을 반영하고있다》라고 하면서 《미중관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리유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통신, 방송들도 미국의 대중국전략은 사실상 경제, 군사적으로 팽창하는 중국의 힘을 막을 대안이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남조선을 《인디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가담시킨것도 대중국로위향

성의 앞장에 내세우려는 기도에서 출발한것이라고 평하고있다.

현실이 이러한에도 남조선의 윤석열 《정부》는 극도로 침체해지는 중미대결의 짊어 끼운 저들의 위태로운 신세도 간파하지 못하고 외교균형을 파괴하며 천미일변도 정책에 매달리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에 의해 《한》중관계가 시련을 겪을것이다. 남조선이 미국의 반중국전제선에 깊숙이 개입하는 경우 대국들의 강력한 정치외교적압박을 초래할수밖에 없을것이다. 주변강대국들의 틈에 끼워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를 건잡을수 없는 위기국면으로 몰아넣고 사면초가의 운명에 빠져들수밖에 없다고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정혁



평양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고구려시기의 귀중한 력사유적 - 대성산성



안학궁터

대성산성의 전경

평양의 력사유적을 찾는 우리 민족사에 깊은 자욱 우리의 취재길은 5세기 고구려의 평양천도와 더불어

우리와 동행한 림금석 평양시민족유산보존사 실장은 《대성산일대에는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기 위하여 건설하였던 안학궁과 대성산성, 그 주변의 도시유적과 방위성유적,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호남리사신무덤을 비롯한 천여기에 달하는 고구려무덤들이 있어 하나

의 큰 고구려박물관을 방불케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큰성이라는 뜻의 대성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주변의 력사유적들이운데서 대성산성을 첫번째로 꼽는다고 한다. 그의 해설을 들으며 소문봉을 따라 한참 올라가느라니 남쪽경사면에 치우쳐 있는 옛 산성이 눈앞에 안겨왔다. 《대성산성은 고구려왕궁이었던 안학궁을 보위하는 방위성으로서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땀 림금석 실장은 대성산성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대성산성은 소문봉, 울지봉, 장수봉, 북장대, 국사봉, 주작봉의 6개의 봉우리

들을 연결하여 산릉선을 따라 쌓은 총길이 9 284m에 이르는 큰성이라고 한다. 대성산성안에는 전시에 왕과 수천, 수만명의 군사들과 인민들이 들어와 살면서 외적을 쳐물리칠수 있는 시설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있었다고 한다. 대성산성에서는 수많은 유물들이 발굴되었다고 하면서 림금석실장은 산성이 고구려의 발전된 산성건축술과 성방위체계를 연구하고 인민들에게 애국심을 안겨주는데서 귀중한 력사유적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풍운의 력사가 력력히 어려있는 대성산성을 바라보느라니 천년강국으로 자랑났던 고구려시기 인민들의 용맹과 기개가 장엄하게 안겨왔다.

장승영

천연기념물 백두산조선범



조선범은 씨비리범(씨비리 남동지역), 화남범(중국경내), 이란범(인디아, 네팔, 이란), 발리범(말리만반섬을 제외한 인도네시아)을 비롯한 여러 아종들보다 크고 날쌔며 용맹스럽고 잘생겨 세상에 널리 알려진 동물이다. 조선범의 몸길이는 150~180cm, 꼬리길이는 90~100cm이며 몸질량은 150~200kg이다. 고양이고 짐승들중에서 가장 큰 종으로서 대개는 크고 얼굴이 넓으며 귀는 짧고 둥글다. 다리는 든든하게 생겼으며 네발에 날카로운 갈 구리발톱이 있다. 랑볼에는 긴 수염이 옆으로 위엄차게 나있고 이마의 중심에는 포모양의 검은 무늬가 있으며 털은 백백하고 등쪽에는 선명한 누린색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있다. 조선범은 높은 산지대의 울창한 수림속에서 사는데 낮에는 자연바위굴이나 쉼터나 무굴속에서 휴식하고 초저녁과 이른새벽에 활동한다. 먹이는 주로 메돼지, 노루, 사슴, 사향노루, 늑대, 송냥이 등이며 번식은 2~3월에 한번씩 하는데 3~4월에 2~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천연기념물 제357호로 등록된 백두산조선범은 공화국의 북부 높은 산지대의 극히 제한된 구역에서 산다. 조선범은 국제적인 특별보호대상동물이다.

본사기자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민족의 약초재배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여러가지 약초를 리용하여 만든 고려약을 병치료에 많이 써왔다. 단군설화에 마늘과 쑥의 신비한 약효가 소개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국가형성이전시기에 벌써 약초에 대한 리해를 가지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약초에 대한 리해는 세나라시기에 더 깊어졌는데 《해동역사》를 비롯한 옛 문헌들의 기록에 나오는 인삼에 대한 노래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고구려사람이 지은 이 노래에는 인삼의 형태와 생리특징, 인삼이 자라는

지대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고려때에는 앞선 시기에 마련된 토대에 기초하여 약초재배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시기 많은 의학자들에 의해 여러가지 약초들이 얻어낸 약재들이 병치료에 널리 리용되었다. 그 과정에 인삼, 지황, 구기자 등 여러가지 약초가 재배되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조선인삼은 약리효능이 높은것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지난 시기 우리 선조들이 고려약을 리용하여 병치료에서 거둔 의학성과들을 집대성한 도서

《향약집성방》이 나와 널리 보급되었다. 19세기에 편찬된 《림십록지》 판규지의 기록을 보아도 토종약초를 기본으로 약초재배가 다종다양하게 진행되었다는것을 알 수 있다. 생산된 약초는 가루내기와 찌기, 말리기, 끓이거나 술에 담그기, 꿀에 재우기와 같은 갖가지 가공방법을 거쳐 병치료에 리용되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먼 옛날부터 약초재배를 널리 진행하면서 전통적인 고려의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온 슬기롭고 재능있는 민족이다.

본사기자



공화국의 고려약공장들에서 생산되고있는 고려약들



몽천 (1)

글 권영희, 그림 김윤일

옛날 충청도 청주땅에 사는 두 젊은이가 보는 속리산에 들어가 글을 읽고있었는데 하루는 그들중에 리가성 가진 젊은이가 문득 글읽던 책상을 밀어놓으며 말했다. 《어보게 연서방, 우리 금강산경 가세. 지금이 꼭 좋은 계절일세. 단풍이 한창 일레니 그 아니 좋은가.》 《그럼 가세. 그런데 차비를 단단히 하구 떠나야 할게 아닌가.》 《원 참, 자네도. 차비는 무슨 차비가. 대지팡이 하나에 미루리 한켠이면 되지. 그 야말로 죽장방헤로 가면 되겠어.》 이리하여 그들은 말그대로 죽장방헤로 속리산을 떠나 수일만에 금강산에 이르러 지팡이를 길안대로 두루 돌아보는데 금강산은 산악미의 정화일뿐 아니라 온갖 식물의 보물고이기도 하였다. 가을이어서 온 산은 타는 듯 붉은데 단풍의 가지수 또한 무르익어 향기로운데 열매 배를이 눈으로 더 좋은 것을 어찌 가려보겠나. 나는 황홀해서 그만 취해버렸네. 《허허허...》

리서방이 한번 크게 웃고 나서 말했다. 《우물안 개구리는 먼한것 같은가? 나도 오늘 참 많은것을 생각했네. 들어앉아 글을 읽다보니 내가 사는 나라가 이토록 아름다움을 모르고 살았네그려.》 한동안 생각이 잠겨 말없이 걸던 연서방이 또다시 입을 열었다. 《어보게! 리서방, 그 왜 삼일포라는데가 있지 않은가? 전설에 옛날 어떤 왕이 하루동안 놀려고 왔다가 경치가 하도 좋아 사흘을 놀다갔다고 해서 삼일포라 한다는 곳 말이야. 거기 가보세. 우리가 언제 다시 오겠나?》 《하하, 아니, 자네는 아까 이젠 승경에 눈이 배물러 더는 못보겠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대답하곤 리서방이 고개를 젓혀 하늘을 퍼득 쳐다보며 《아직 해는 있네만 길을 잘 모르니...》 하는데 문득 풀퍼리소리가 들려 고개를 둘러 바라보니 한 초동이 나무단우에 머무르다래념꼴을 한아름 없애고 내려오고있었다.

손으로는 지계작대기를 잡고 또 한손으로는 퍼리를 싸고 뿔리 벨리리... 하고 불며 뿔씩씩 내려오다가 그들을 보고 무릎 꿇음을 멈추고 묻는것이였다. 《어디로 가시나요? 금강산경 다 하시고 내려가시나요?》 《음, 그렇다. 그런데 너 삼일포가 어딘지 모르느냐?》 하고 리서방이 물으니 초

제법 크게 나서는데 그리로 쪽 가시면 인가가 나옵니다. 게 가서 물어봅시다. 게서도 한참 더 가서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두주먹을 불끈 쥐고 부지런히 걸어 삼일포에 구에 이르니 과연 옥병풍을 둘러친듯 높고낮은 봉우리들이 둘러싸인 그리 크지 않은 자연호수가 나타났다. 가을비에 씻긴 기암절벽의 로송들과 36개의 봉우리들이



동은 《하하, 아 삼일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이까? 더군다나 저야 금강산에 사는 아이인데요. 게다가 가실려면 제우 걸어서야겠습니. 에서 아직 먼데요.》 하더니 지계를 벗어 버려놓고 나서 손을 들어 한곳을 가리켰다. 《저기 저 벼랑에 큰 소나무가 서있지요? 거기서 왼쪽으로 조금 꼬부라지면 길이

맥질하며 노는 해오라기들을 바라보고있던 연서방이 문득 말하였다. 《어보게, 이제 저녁노을도 질어가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어찌 헤칠때에 잠깐 보고말겠나? 우리 어디 가서 자고 매일 다시 와서 보세. 아까 이리 오다가 보니 저 멀리 구름사이로 닭과 개가 쫓기우고 쫓고 하네. 그 어름에 인가가 있는것이 틀림없네. 게 가서 자기로 하세.》 하고 말하니 리서방이 손을 내저으며 《아니, 이 근처에 사찰이나 암자가 꼭 있을것 같네. 경치좋은 곳을 찾다다 니며 짓는것이 사찰인데 이 좋은 곳에 사찰이 없을리 없네.》 하고 말하여 그들이 둔덕으로 올라가 두루 살펴 면서 한곳에 이르렀을 때 리서방이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연서방, 저 소리가 자네도 들리나?...》 하며 귀를 도사렸다. 연서방이 자기도 귀를 도사리고 들으려니까 못새들이 우짖는 소리가운데 간간히 쟁그렁그렁... 하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은은히 들려오고 또 이따금 또드락또드락 하는 소리로 바람에 실려왔다. 《어보게, 저 소리는 풍경소리와 목탁소리가 분명하. 가까운 곳에 사찰이나 암자가 있네. 틀림없이...》 이들이 반가와하며 소리나는 곳을 가는데 가는데 과연 한적한 숲속에서 암자가 있었다.

본사기자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들

태권도 선수 김유심

어려서부터 태권도에 남다른 취미와 소질을 가지고있던 김유심은 황해북도래린도 선수단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 제12차 청소년 및 제7차 로장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46kg급 여자개인맞서경기에서 우승하여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성인급에 올라선지 몇 년밖에 되지 않는 지난 기간 자신의 육체적기술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었다. 지난해에 진행된 2차례의 국내경기들에서 그는 경기의 식이 높고 완강한 투지를 소유한 강자로서의 기질을 남김없이 보여주어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의 높은 실력은 맞서 경기에서 훌륭히 발휘되었다. 예선경기에서부터 맞닥뜨린 선수들을 모두 누르고 결승 단계에 진출한 그는 이악하고 적극적인 공격과 반공격으로 상대방을 수세에 몰아넣으면서 자신의 전술적도를 잘 살리었다. 빠른 이동에 의한 민첩한 동작으로 불의적인 타격을 들어대면서 경기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그는 자기몸무게급에서 우승자의 영예를 지녔다. 국내의 강자들이 참가하여 치열한 격전을 벌인 경기대회에서도 그는 완강한 투지와

함께 높은 기술수준을 또다시 보여주었다. 여자경량급경기에서 그와 맞닥뜨린 선수들은 높은 실력과 로련한 경험, 전적을 가진 김유심을 경기시작부터 자기의 특기를 잘 살리면서 우세한 전술, 기술로 맞닥뜨린 선수들을 모두 이기고 우승자가 되었다. 개인전에 이어 단체전에서도 그는 팀이 1등을 쟁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경기성과들로 하여 그는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었다.

본사기자

조선화 《구룡폭》



옛날 평안도 어느 한 두메산골의 자그마한 마을에 장대용이라는 젊은이가 살고있었다. 그는 천성이 어지고 대바른데다가 용맹과 지략을 겸비하고있어 의협심이 강했다. 특히 그는 남을 도와주는것을 락으로 삼았다. 어느해 봄날 장대용은 금골부근의 마을에 나타나 로략질과 살인 방화를 일삼는 도적무리를 징벌하고 인물골기로 소문난 최로인의 말을 구해주었다. 최로인은 그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고 장대용에게 시집보내려고 하였다. 사실 딸에게는 이미 영감이라는 정든 사람이 있었는데 처녀를 구하려고 도적과 맞서 싸우다가 다리를 상하여 운신도 못하고 집에 누워있었다. 이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상해하던 처녀는 다음날 최로인을 따라 장대용의 집으로 갔다. 최로인이 찾아온 사연을 알게 된 장대용은 《로인님, 다른 일로 인연이 맺어진다면 별다른것이 없지만 불행

한 처지에 빠진 구수를 구원하고 그에 락을 걸고 맞아들이면 진정한 부부로는 못되는 법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자기는 한평생 죄인으로 되어 사람다운 덕을 지니고 살지 못할것이라고 거절하였다. 최로인이 자기의 의견을 계속 고집하자 그는 따님의 말을 듣고 싶다고 하였다. 처녀는 장대용의 말을 전해들은지라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지키다가 고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속이는것이 진정으로 죄스럽게 생각되어 영감이의와 판계를 이야기하였다. 처녀의 이야기를 들은 대용은 자칫하면 큰 잘못을 저지를뻔 했다고 하며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에 남을 받고나서 그 값을 받을 생장을 말라고 하였소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구해주고 대가를 받아내려 한다면 차라리 구해주지 않는것만 못하다고 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도적과 게으름뱅이

옛날에 한 도적이 몰래 남의 집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주인은 침대에 누워 까딱하지 않았다. 깊이 잠들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그런데 집이 하도 가난하여 아무리 둘러봐야 가져갈 만한 물건이 없어 문을 열어놓은채로 나가버렸다. 이때 침대에 죽은듯이 누워있던 주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다 봤으면 문이나 좀 닫고 가요.》 도적이 돌아서서 오히려 꾸짖었다. 《당신이 그렇게도 못사는게 우연한 일이 아니구려!》 그러자 집주인은 코웃음치며 말했다. 《벌어놓았잖아 당신같은 사람들이 도적질해가겠는데 그럴바엔 차라리 그냥 누워있게 낫지.》